

1920년대 후반기~1930년대 전반기 진보적소설들에 반영된 농민형상의 특성

정 철

민족수난기 진보적인 작가들은 일제의 악랄한 민족말살책동속에서도 계급적모순을 깨닫고 항거와 투쟁으로 나가는 농민형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반항이 있는 법입니다.》(《김일성전집》 제55권 406페이지)

민족수난기 진보적소설에 반영된 농민들의 항거는 사회적압박과 고통스러운 생활처지로부터 오는 필연적인것이다.

당시의 사회력사적환경과 조건은 《카프》작가들을 비롯한 진보적작가들로 하여금 사상적으로나 계급적으로 성장하고 보다 조직화되어 폭력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농민들의 새로운 투쟁모습을 자기들의 소설들에 담게 하였다.

1920년대 후반기~1930년대 전반기 진보적소설들에 반영된 농민형상의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개인적인 항거자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농민들의 항거는 필연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는것이다.

대표적작품들로는 단편소설들인 《큰물진 뒤》(최서해, 1925), 《홍염》(최서해, 1926), 《최서방》(계용목, 1927), 《오도룡》(리무영, 1934), 《만보령감》(리무영, 1935) 등의 작품들이 있다.

작품들에서는 당시 일제의 식민지악정과 지주의 착취와 략탈로부터 더는 참지 못하고 항거으로 나서는 농민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실례로 단편소설 《홍염》은 주인공 문서방의 형상을 통하여 일제식민지통치에 항거하는 농민들의 투쟁의 불가피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소설의 주인공 문서방은 경기도에서 소작살이 10년동안 겨족만 먹다가 그러한 생활마저 유지하지 못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 안해와 딸과 함께 서간도로 갔다.

살길을 찾아 만주로 갔으나 그를 맞아준것은 역시 소작살이였다.

그는 간도에서의 3년간의 생활끝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빚더미만 걸머지고 끝내는 외동딸마저 지주에게 빼앗긴다.

지주에게 강제로 딸을 빼앗기고 몸부림치는 문서방내외의 비극은 그대로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우리 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생활의 일면이였다.

이러한 비극을 보면서도 이웃들중 누구 하나 도와주거나 막아나서주지 못하였다.

딸을 빼앗기고 병들어 누워있던 안해가 피를 쏟고 죽는것으로 하여 비극의 심각성은 한층 고조된다.

안해의 죽음은 문서방의 성격발전에서 하나의 계기로 된다. 그리하여 착취에 시달리면서도 공손히 순종만 하던 문서방은 지주를 죽이고 그의 집에 불을 놓는다.

작품은 이처럼 문서방의 형상을 통하여 일제식민지역압과 지주의 착취밑에서 그에 대한 항거는 필연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민족수난기 진보적소설들에서 개인적인 항거자로서의 농민형상은 대체로 《홍염》의 문서방과 같이 더는 기대할것도 바랄것도 없는 생활적압박으로부터 폭력적인 항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인물로, 그들의 항거가 필연적인 행동으로 그려지고있다.

단편소설 《큰물진 뒤》에서 주인공 윤호는 돈한푼 쓰지 못하고 해산해야 하는 안해의 눈물나는 정상, 새로 태어난 아들의 죽음, 뚝이 터져 집을 잃고 돈벌이를 나갔다가 매맞는 등의 가혹하고 비참한 형편으로부터 더는 참지 못하고 종당에는 칼을 들고 리주사네 집으로 달려간다.

단편소설 《최서방》에서 송지주의 빚독촉에 끝내는 참지 못하고 도끼로 독과 술을 깨 버리며 항거하는 최서방의 형상, 《만보령감》에서 생활고에 견디지 못하여 기계방아간을 불지르는 만보령감의 형상 등도 그 실례이다.

이처럼 민족수난기 진보적소설들에서는 비록 개인적인 항거이지만 그들의 형상을 통하여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와 지주의 착취와 략탈속에서 농민들의 항거는 필연적이며 합법칙적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1920년대 후반기~ 1930년대 전반기 진보적소설들에 반영된 농민형상의 특성은 다음으로 소극적이지만 조직적인 투쟁의 앞장에 선 선각자의 형상과 집단적인 항거에로 펼쳐나서는 농민들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대중투쟁의 불가피성을 보여주고있는것이다.

대표적작품들로는 단편소설들인 《홍수》(리기영, 1930), 《맥추》(리기영, 1937), 《호미를 쥐고》(송영, 1930), 《힘》(엄홍섭, 1936), 《군중정류》(송영, 1927), 《부역》(리기영, 1932), 《목화와 콩》(권한, 1931), 《홀러간 마을》(엄홍섭, 1930), 《사하촌》(김정환, 1936), 《춘선이》(조명희, 1928), 《평범한 이야기》(박승극, 1935) 등과 장편소설 《고향》(리기영, 1933) 등이 있다.

작품들에서는 농민과 지주와의 첨예한 대립속에서 일정하게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일제와 지주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대중을 결기시키는 선각자로서의 농민형상을 보여주고있다.

개인적인 항거자로서의 농민을 형상한 소설들에서 인물들의 성격이 깊은 동정속에서 주로 사회적모순의 희생자, 수난자의 측면에서 그려졌다면 선각자를 형상한 농민형상소설들은 모순된 사회에 대한 항거에 초점을 두고 인물들의 성격을 형상하고있다.

단편소설 《홀러간 마을》에서는 고서방과 같은 선각자의 형상과 함께 그의 영향밑에 단결하여 투쟁하는 농민들의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작품은 백만장자이며 도평의원인 지주 최병식을 반대하여 결기한 농민들의 대중적투쟁을 묘사하고있다. 가혹한 착취와 략탈속에서 생활이 날로 조들려가는 마을농민들은 최병식이 마을우에 별장을 짓고 개울을 막아 방축을 쌓게 되자 오막살이마저 홍수에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고서방의 호소에 농민들은 집단적으로 고역을 거부하고 방축을 못쌓게 해달라고 군청에 진정서를 들이댄다. 그러나 그것은 단번에 거절당한다. 결국 한달동안 가물던끝에 억수로 쏟아지는 비로 방축이 터지고 마을사람들은 하루밤사이에 집과 가산을 잃고 생명까지 빼앗기게 된다.

그러나 최가는 방축을 다시 쌓고 향락을 계속 누리면서 마을사람들에게 티끌만한 동정조차 없다. 경찰서장이며 군수, 도평의원족속들이 모여 환락을 누리던 그 밤 이미부터 동쪽쌓기를 반대해온 농민들과 함께 고서방은 《내게는 큰힘이 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밤마다 젊은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던 모든것을 단행할 결심을 굳힌다. 그리하여 그는 추석놀이에 모인 농민들을 이끌어 《별장기둥두 뽑아버리구 ...불살라 버리기》 위하여 고서방의 선창에 따라 《상사뒤여》의 우렁한 합창과 함께 별장을 포위

하고 물려간다.

이대로 압제받고 살줄아나
상사뒤여
우리네 뭉친 힘은 못꺾느리라
상사뒤여

별장이 네 별장될줄 아나
상사뒤여
죽어도 우리 할 일 하고야말세
상사뒤여

이 노래는 그대로 농민들의 뭉친 힘에 대한 상징이며 기어코 최병식과 같은 착취자들을 요정내고야말리라는 확신의 시위다.

작품은 마을사람들의 거세찬 기세와 그앞에서 당황망조하는 최병식의 물골을 통하여 단합된 대중의 위력과 그 승리에 대한 신념을 안겨주고있다.

단편소설 《힘》에서는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펼쳐보이면서도 굴하지 않는 농민들의 끈끈한 성격, 일정하게 계급적으로 각성한 농민들의 기개를 형상하였다.

단편소설들인 《호미를 쥐고》, 《군중정류》 등은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투쟁에 나서는 농민들의 모습을 그리고있다.

《호미를 쥐고》는 《동척회사》의 토지략탈책동의 일단을 보여주면서 이에 단합된 힘으로 맞서는 농민들의 집단적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소설에서 농민들은 지주 리농감이 차린 잔치에 물려온 《동척》의 출장원들과 면서기들이 소작권을 떼겠다고 으르는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다. 그들은 땅이 없으면 굶어죽으니 어떻게 하든지 다시 부쳐달라고 애원하던 지난날의 농민들이 아니다.

애원도 눈물도 일제와 지주들의 착취앞에서는 너무도 무력하다는것을 뼈저리게 느껴온 농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맞설 계획을 가지고 일제와 지주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선다.

단편소설 《부역》이나 《목화와 콩》에서는 일제와 지주들의 착취와 략탈에 격분하여 일떠선 농민들이 승리를 이룩하는 형상을 통하여 단결하여 싸우면 이길수 있다는 사상을 밝히였다.

1920년대 후반기~1930년대 전반기 진보적소설들은 일제와 지주들의 식민지적 및 반인민적착취에 맞서는 항거자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당시 사회현실을 예술적으로 분석하고 대중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지만 올바른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에 기초한 대중투쟁을 보여주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기~1930년대 전반기 진보적소설들은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말살책동속에서도 민족의 넋을 지키고 반항의식을 심어주는데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